

# 광주시, 치매 조기발견·관리 적극 나선다

### 65세 이상 노인인구 꾸준한 증가 '2023 치매관리 시행계획' 마련 찾아가는 치매 검진·예방교실 등 사각지대 해소·접근성 확보 방침

광주시가 2023년부터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치매 환자의 조기발견 및 증증치매 환자 줄이기에 나섰다.

광주지역 노인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환자 발굴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4만 3651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2만 1181명으로 1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30년에는 광주시 총 인구 148만 1825명중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23%인 31만 9706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 유병률은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0%인 2만 1019명이라는 점을 감안해 2030년에도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광주시 치매 유병률은 3만 3292명으로 예상된다. 10년도 안돼 치매인구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치매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특거노인 또한 늘고 있어 치매 고

위험군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광주시는 '2023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내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을 통해 '찾아가는 치매검진', '치매예방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매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대면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접근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환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정서관리, 건강관리, 지역사회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가족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치매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찾아가는 치매검사와 조기검진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만 75세가 넘는 고령 노인의 경우 집중검진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검진하겠다는 것이다.

추가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과 관련해 미술치료, 음악치료, 기억력·집중력 강화운동 등 교육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매예방을 강화한다. 이로써 경도인지장애 등 고위험군의 치매 이행을 예방하고 인지 기능 악화를 방지한다.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 등 자격요건을 갖춘 치매환자의 치매 치료관리비를 계속해서 지원하며 5개 자치구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에서 치매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매가족 간 돌봄정보를 공유하고 스트레스 완화도 도울 예정이다. 이 뿐 아니라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의 경우 주중 낮시간에 치매환자를 돌봐줄 수 있는 쉽터도 계속해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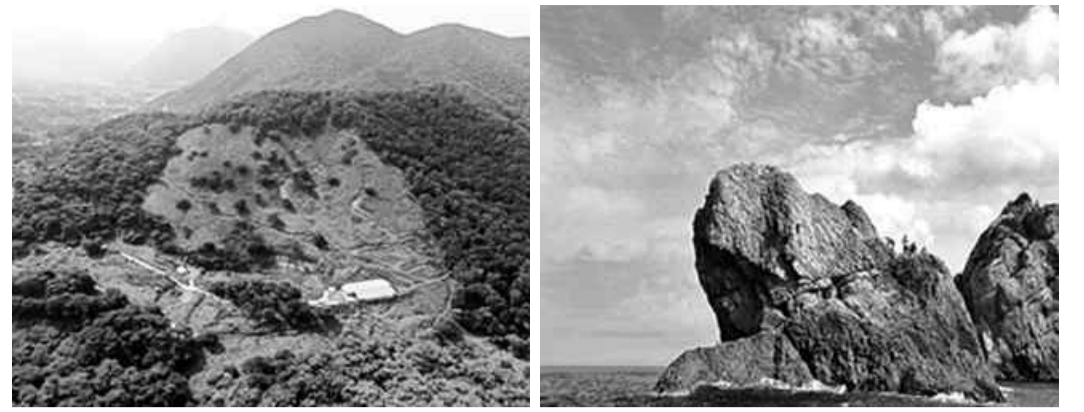
치매에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한 '치매안심마을'도 점차 늘릴 예정이다. 광주에는 현재 9개 치매안심마을이 있으나, 올해 3곳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 돌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공공기관, 의료기관, 치매극복선도학교, 종교단체 등이 모여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방향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치매인식 개선사업에 기업, 단체, 상점 등의 적극적인 동참 유도로 치매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주민들에게는 치매환자의 행동 특징과 응대법 등을 교육하고 치매에 대한 관심 제고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치매검진으로 조기 발견을 돕고 치매예방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치매환자의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슈퍼브레인' 프로그램을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 유관기관에 보급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 태블릿을 활용한 인지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 광주시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꾸준히 치매지원사업을 확대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질의 치매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을 통해 복원 계획을 수립 중인 무등산 '너와나목장'(왼쪽)과 거문도 갯바위.

## 국립공원 내 사유지 올해도 사들인다

### 환경부, 2월12일까지 '매수사업'...생태계 완충구역 확보

무등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국립공원공단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이 올해도 실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다음달 12일까지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 이용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매수 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로,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대규모 토지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무등산과 거문도의 국립공원 내에 속해 있던 일부 사유지를 구입해 복원계획을 수립중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 토지소유자와 협의 끝에 너와나목장(13필지, 0.13km)을 매수해 지역사

회와 함께 복원계획을 수립중이다. 다도해에 있는 거문도 일대(68필지, 0.27km)도 매수한 뒤 '갯바위 생태휴식지' 등을 도입해 신규 보전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내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완충구역을 확보할 계획이다.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국립공원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송경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인 만큼 매도를 원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 4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162만원...청년 자립수당 월 40만원

### 복지부, 달라지는 보건 정책 공개 장애수당 50%↑ 돌봄서비스 확대

올해는 기초수급 기준이 완화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등 각종 복지수당이 늘어 장애인과 노인 돌봄 서비스가 향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3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공개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 서비스를 소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확대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4인가구 기준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하면서 3만 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 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롭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인상된다. 긴급복지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인가구 기준 지난해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162만 200원을 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도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이후 유지됐던 장애수당의 단가가 올해 50% 인상된다. 또 자립준비 청년의 지원금도 커진다.

올해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연장 후 혹은 보호종료 대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든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기존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증가하고,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경우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에서 돌봄서비스까지 연계해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요양병원과 시설에 입원 및 입소 연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가 확충되고 의료와 돌봄서비스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도 확대된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기존 50만명에게 제공됐던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5만명까지 늘린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목포 관광거점 44곳에 '생물탐사지도' 배포

### 호남권생물자원관, 고하도 중심 생물자원 644종 정보 담아

목포시 주요관광지에서 고하도 섬 생태를 탐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도를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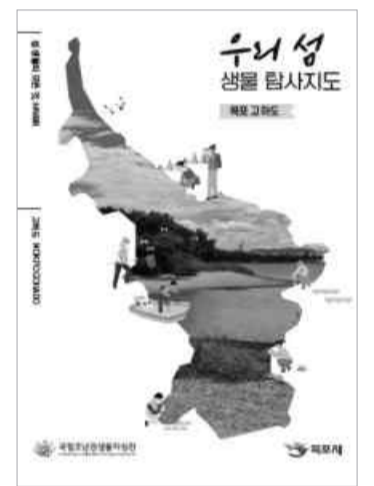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목포시는 최근 공동으로 제작한 '우리 섬, 생물탐사지도'를 목포시 주요관광지 44곳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도에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시민과 학자와 함께하는 섬생물탐사단'과 지난해 목포시 고하도 합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생물자원 644종의 정보가 담겨 있다.

고하도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생물탐사지도는 생물자원의 사진 및 정보 뿐만 아니라, 생물 명칭의 유래와 용어 설명까지 포함돼 생태 관광에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생물탐사지도 제작과정에서 총 131목 257과 644종의 생물자원과 원생, 원생, 균류에서 국내 미기록 후보종 4종이 파악됐다. 특히 석곡, 삼백초, 지네발란, 흰발농게, 검은머리물떼새, 참매, 큰기러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7종의 서식도 확인됐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이번 고하도 생태탐사지도 배포를 시작으로 '섬생물탐사단' 활동을 이어나가 섬·연안 지역의 생물자원을 알리고 대국민



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류태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목포 고하도를 시작으로 한 '우리 섬, 생물탐사지도' 배포를 통해 목포시를 방문하는 국민이 섬생물자원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며 "앞으로 섬생물탐사단을 통해 지역 생물자원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